

# 17년간 5·18대 홈경기 못치러... 남행열차 부르며 달린 울분



해태 타이거즈 선수들이 1983년 한국시리즈에서 MBC 청룡을 4승 1패로 누르고 첫 우승을 차지한 뒤 금남로에서 카파레이드를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신군부, 그라운드까지 통제

지역민 운집 부담 광주 프로야구 일정 조정 기무사 문건 확인  
'천하무적' 해태에 지역민 대리 만족...무등야구장, 한 많은 시민 위로  
KIA타이거즈로 이어지는 수십년사...시민들, 한결같은 사랑과 응원

올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40주년을 맞는다.

5·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됐지만 광주에는 '아픔의 이름'이기도 했다. 설움을 풀어내던 광주 그라운드에도 5·18의 흔적이 남아있다.

야구는 어두운 시대에 광주 시민들의 희망이었다. 그라운드에서만은 '천하무적'이었던 해태 타이거즈를 통해 지역민들은 대리 만족을 느끼고, 승자가 됐다. 무등야구장은 사연 많은 남행열차와 목표의 눈물을 부르면서 말 못 할 설움을 풀어내는 공간이었다.

그만큼 신군부에게 5월 18일의 광주 그라운드는 반갑지 않은 무엇이었다.

실제로 프로야구가 출범한 1982년부터 1999년까지 5월 18일에는 무등경기장 조명탑이 켜지지 않았다.

현재 144경기와 비교해 경기수가 적었던 당시, 5월 18일에 야예 경기를 편성하지 않기도 했고, 경기가 있던 11번의 5월 18일에는 타이거즈 선수들이 광주에 없었다.

1986년 광주에서 MBC와의 홈경기가 편성된 적이 있지만 끝내 경기는 열리지 못했다.

토요일이었던 5월 17일 타이거즈는 광주에서 MBC와 경기를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선수들은 전주로 이동해 경기를 해야 했다. 경기 시간도 오후 5시에서 4시로 앞당겨졌다. 경기 장소와 시간 변경 배경에는 신군부의 불안과 불편한 심기가 작용했다. '오월 그날'에 무등경기장에 광주시민이 모이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지난 2017년 공개된 국군 기무사령부의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5·18 대비 광주지역 프로야구 경기 일정 일부

조정' 문건을 보면 '한국야구위원회는 5·17일을 전후한 광주권 안정을 위한 당국의 권유에 따라 광주에서는 프로야구 경기 일정을 일부 조정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정 내용에는 5월 17일 오후 4시 광주 경기 시간을 3시로, 5·18일 경기는 야예 경기장과 경기시간을 바꾸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건에는 '당국에서 당초 17, 18일 양일 경기를 모두 전주로 장소를 변경토록 요청했으나 현지 주민의 거부반응을 감안, 시간과 18일 장소만 변경'이라고 적혀있다.

또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심판에게 경기를 신속히 진행토록 조치'라는 문구도 확인할 수 있다.

5월 18일 경기가 금지되면서 광주 시민들은 매년 돌아온 아픔의 날에 유일한 해방구였던 무등경기장에서 울분을 토해내지 못했다.

5·18에 무등경기장이 개방된 것은 지난 2000년이 처음이다.

처음으로 5월 18일에 광주에서 경기가 열렸지만 이날 공교롭게도 타이거즈는 기록의 희생양이 됐다. 이날 타이거즈는 한화 송진우에게 단 하나의 안타도 뽑아내지 못하면서 프로야구 통산 10번째 노히트노런 기록을 내졌다.

2000년을 시작으로 타이거즈는 5월 18일이라



1987년 삼성과의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우승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는 금지어를 지었다.

시대가 달라졌고, 5·18에 대한 역사의 평가도 달라졌다. 하지만 타이거즈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정은 변하지 않았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KBO

의 그라운드가 희망의 장소가 되고 있다. 구단 첫 외국인 사령탑으로 '왕조 재건'에 나선 타이거즈가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위안이 되는 2020시즌을 만들 수 있길 주무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호랑이 원투펀치, 곰 몰려 나간다

KIA, 홈에서 두산과 주말 3연전  
양현중·브룩스, 천적관계 청산 나서

'호랑이 군단'이 막강 원투펀치를 앞세워 천적 관계 정리에 나선다.

대전 원정에서 승률을 높인 KIA타이거즈가 안방으로 돌아와 두산 베어스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KIA는 지난해 두산에 3승 13패의 절대적인 열세를 기록한 반면 시즌 내내 선두를 지켰던 SK 와이번스에는 8승 7무 1패로 앞섰다. 결과적으로는 KIA가 두산의 극적인 역전 우승에 큰 역할을 한 셈이다.

지난 시즌 단 3승을 가져오는 데 그쳤던 만큼 주말 3연전은 KIA의 설욕전이다.

로테이션에 따라 양현중과 브룩스 막강 원투펀치가 두산을 기다리고 있다.

양현중은 지난해 두산과 두 차례 만나 1.93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1패를 기록했다. 1패도 7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팀이 0-1로 지면서 기록했다.

브룩스는 앞선 두 차례 등판에서 차원이 다른 피칭을 선보이며 올 시즌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외국인 투수가 됐다. 까다로운 두산 타자들과의 맞대결 성

적에도 그만큼 관심이 쏠린다.

KIA는 강력한 선발로 기싸움을 하고, 허술해진 두산 뒷문을 노리게 된다.

두산 불펜진은 13일까지 7경기에서 가장 높은 9.12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불론 세이브도 두개가 남았다.

특히 지난 시즌 19세이브를 수확한 이형범이 3경기에서 10.80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이형범이 흔들리면서 필승조도 동반 부진에 빠졌다.

12일 롯데 원정 경기는 두산의 마운드 고민을 여실히 보여줬다.

선발 이형범이 5-2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동점을 허용했고, 이어 나온 최원준은 역전 주자를 홈에 들여보냈다.

타자들이 7회 승부를 8-7로 다시 끌고 왔지만 함덕주와 이형범이 투입된 8회말 2실점이 기록했다. 두산은 9회초 오재일의 동점홈런으로 다시 9-9로 균형을 맞췄지만, 이형범이 9회말 민병헌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면서 승리를 내줬다.

KIA도 불펜진 고민을 안고 있는 만큼 선발 싸움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양현중과 브룩스가 시즌 첫 만남에서 '두산 징크스' 깨기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

## '첫 패' 보약 마신 광주, 서울서 첫 승 사냥

17일 K리그 2라운드 원정  
펠리페·마르코 화력 기대  
전남, 내일 제주와 리그2 홈 개막전

힘난한 개막전을 치른 광주FC가 서울로 첫 승 사냥을 떠난다.

광주가 17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2020K리그 2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지난 10일 안방에서 성남FC를 상대로 K리그 1라운드 개막전을 가졌다. 간절하게 기다렸던 무대였지만 경기 끝난 뒤 광주 박진섭 감독의 표정은 좋지 못했다.

개막을 알리는 휘슬이 울린 지 4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는 등 초반에 2실점 하면서 계획과는 다른 흐름이 전개됐다. 박 감독은 평소와 다르게 일찍 교체 카드를 사용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경기는 0-2패였다.

박 감독은 "모든 게 실패였다"며 개막전 전술 패배를 인정했다.

아쉬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박 감독은 빠르게 전술 변화를 줬고, 선수들도 이에 맞춰 페이스를 찾아가려 했다. 박 감독은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모습은 감독 입장에서 고맙다"며 선수들의 투혼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3년 만에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향하는 광주의 시선은 '전면'에 쏠린다.

광주는 지난해 팀의 우승을 이끈 'K리그 득점왕' 펠리페와 올 시즌에도 함께 한다. 여기에 코스타리카 국가대표인 마르코도 영입하며 화력을 강화했다.

최상의 공격자원이 갖춰졌지만 앞선 개막전에서 투톱으로 섰던 두 사람은 찰떡 호흡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상대의 집중 견제로 유기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하면서 광주 공격 흐름은 무뎠다.

펠리페를 중심으로 K리그에 맞는 공격루트를 고민했던 박 감독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다.

박 감독은 "다른 전술을 통해 적극적인 포메이션 변화를 가져가야 할 것 같다"며 서울전을 위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다.

어찌 됐든 펠리페와 마르코는 높은 K리그 벽을

뚫는데 필요한 화력 자원이다. 여기에 스피드로 그라운드를 휘저어줘야 할 엄원상, 김정환, 윌리안이 모두 부상 중이라 공격 조합 구상에 한계가 있다.

특심인 두 선수를 활용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서울의 허를 찌르는 조합으로 공세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감독은 "서울은 강팀이고 원정 경기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항상 잘 이겨내 왔다. 광주답게 극복하겠다"며 서울전 필승을 다짐했다.

한편 창원 원정으로 2020시즌을 열었던 전남드래곤즈는 16일 오후 4시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갖는다.

역대급 승적 전쟁이 예고된 K리그2에서 제주주는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상대이자 강력한 '우승후보'다.

역대 전적에서도 제주가 40승 20무 16패로 전남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경기에서 제주는 8승 1무 1패로 전남의 '천적'이었다.

어려운 상대를 연달아 만나게 됐지만 전남은 앞선 경남과의 경기에서 점유율 열세에도 승점 1점을 챙겼다. 돌아온 이종호와 새로 합류한 황기욱, 줄리안 등이 좋은 경기력으로 기대감을 높였다.

전남이 안방에서 2016년 7월 9일 이후 4년 만에 제주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길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